

“SVB 사태에 벤처社 자금난 우려... 모험자본 공급 강화”

금융당국,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품질 제고
지속가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상품 비교·추천 범위 확대 필요
금융·비금융 데이터 공유 확대
핀테크·벤처 윈스톱 컨설팅 지원

금융당국이 국내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관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4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과 빅테크 및 핀테크, 금융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기반의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에서 “글로벌 긴축기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결



14일 관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가운데) 주제로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 경쟁을 위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합데이터 재활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우선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속가능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 이외 전(全)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보제공기관의

정보전송 오류 감축 등 마이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고, 합리적 과금 체계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다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 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도 논의됐다. 비금융전문 신용평가(CB), 개인사업자 CB가 금융이력부족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제정·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상임위원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창업 윈스톱 컨설팅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미 SVB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벤처 등 신산업·혁신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여러박빙(如履薄氷·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의 어려운 사업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창업·성장단계별 자금 공급 및 법률·회계·기술 등 윈스톱(One-Stop)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 발굴지원, 글로벌 유니콘 벤처 육성 등을 위해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를 육성을 제시했다.

김병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4%대 고금리 예금 막차 타볼까... 중소형 저축은행 발길

조흥 年 4.5%, 오성 年 4.3% 제공
“당국 모니터링으로 건전성 양호”

중소형저축은행이 연 4% 중반의 금리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대부분의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한 달 새 연 3% 선으로 떨어졌지만 일부 중소형사는 연 4% 중반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자와 자산가가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4%대 금리를 주는 막차에 올라타기 위해서다.

1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곳 저축은행의 평균 예금금리(12개월)는 연 3.74%다. 지난달 초(연 4.62%) 대비 0.88%포인트(p) 하락했다. 이달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내리면서 저축은행의 자금 수신 속도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일부에선 고금리 전성시대가 끝났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선 연 6.5% 수준의 고금리 예금상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 4%가 넘는 예금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뉴스시스

3%대로 내렸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연 4% 중반대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기준 매년 190만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의 목돈이 있다면 고금리 상품에 분산해 투자할 수 있다.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책정한 예금 상품은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다.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어 오성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연 4.3%), 대명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연 4.25%) 순이다. 대원, 한성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4.2%를 지급한다.

지난해 인기가 시들해진 3년물 예금 상품도 눈여겨 볼만하다. 저축은행 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들었을 때 중장기 예금에 가입해 두는 것도 재테크 방법이다. 특히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회전식 정기예금’보다는 일반 정기 예금이 바람직하다.

3년물 예금 상품은 아산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오뚜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 등이 연 3.9%의 금리를 제공한다. 동양, 오뚜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연 3.8%의 금리를 제공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예금 상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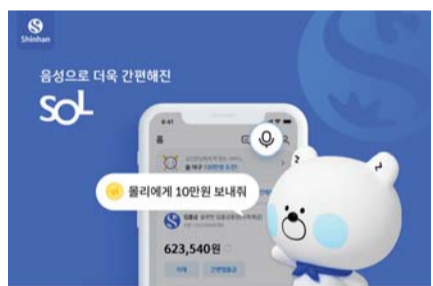
축은행이 익숙치 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떡튀’, ‘파산’ 등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하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이후 대형사를 중심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있지만 중소형사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한다. 부실사태 이후 건전성이 양호해졌다는 것.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매주 저축은행 79곳에 대한 건전성을 점검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2.87%로 2021년 동기(14.61%) 대비 1.74%p 감소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 자산 1조 미만 저축은행은 7%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저축은행권에 악재가 겹치면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했다”면서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만큼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김정삼기자 kimsan119@



신한은행 ‘신한 쏘’ 이체 등 450개 업무 AI 음성뱅킹 서비스

신한은행이 ‘인공지능(AI) 음성뱅킹’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AI 음성뱅킹’은 신한 쏘(SOL)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크 아이콘을 눌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 내용 음성 지시를 통해 ▲메뉴 이동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이체 ▲대출 상품 안내 ▲다 빈도 질문에 대한 설명 등 450여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 ‘AI 음성뱅킹’은 고객이 일상적인 언어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업무 처리에 해당되는 서비스·기능을 찾아 자동 실행해준다. 여기에는 챗봇·전화 상담 2000만 건 중 유효데이터 8만 건을 분리해 고객 사용 단어들을 분석한 ‘자연어 이해 시스템’이 기반이 됐다.

신한은행은 ‘AI 음성뱅킹’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대화형 AI’ 서비스로 구현하고 언제 어디서든 고객 필요에 맞게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비저블 뱅크(Invisible Bank)’의 핵심 채널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터치 기반의 모바일 뱅킹을 넘어 음성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의 일상에 스며드는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미성년 자녀 금융거래 쉽게 하세요”

KB국민은행 스타뱅킹 앱 ‘맘 편한 아이금융’ 오픈

KB국민은행이 KB스타뱅킹 앱에 ‘맘 편한 아이금융’을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맘 편한 아이금융’은 부모가 편리하게 미성년 자녀의 금융거래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성 콘텐츠를 제공한다.

KB스타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미성년 고객의 금융거래 시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추천 상품, 주요 혜택, 편리한 은행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내용으로는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시 필요 서류 안내 ▲모바일번호표 발급 등 편리한 은행 이용 팁 소개 ▲가족단위로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KB스타클럽 가족고객 제도’ ▲10대 전용 금융플랫폼 ‘리브넥스트(Next)’ ▲통신비 절약을 위한 ‘리브엠(Liiv M)’ ▲경제·금융 관련 상식 ‘금융자산 증여 관련 정보’ 등이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만18세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입출금통장 개설 시 최대 3만5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미성년자 관련 금융 서비스를 고객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미성년 고객이 금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익한 콘텐츠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